

21 문둥병자 나아만의 순종

Chapter

왕하 5:1~14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81장 (날 도우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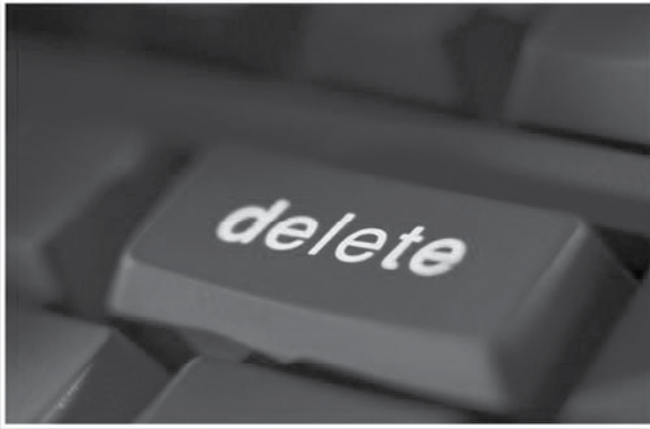
오늘 배울



말씀

1. 나아만이 행위가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병 고침을 받았음을 압니다.
2.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만이 버려야 했던 것들을 압니다.

마음 열기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한 은을 버려야 한다.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금마저 버려야 한다.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다시 오는 것이 없을까 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매달린다.



말씀을 이해하기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민족적 영웅이자 왕으로부터 충애를 받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히도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에서 잡혀 온 종노릇하던 어린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나아만을 불쌍히 여겨 이스라엘에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즉시 계집아이의 얘기를 아람 왕에게 알렸고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 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 당황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도록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친히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예상과는 달리 엘리사는 그의 사환을 보내어 단지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말만 전해 줄 뿐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문둥병이 있는 자리에 손을 대는 등 종교의식을 행하여 병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했기에 이러한 종의 말에 크게 노하여 그대로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종들이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로 그를 설득하자 그는 뜻을 돌이켰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엘리사의 말대로 몸을 일곱 번 강물에 씻었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나아 그의 몸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방인인 그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 그리고 부끄러움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내놓았으나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9)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of works, lest anyone should boast. (Eph 2:8~9)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요 6:27~29)

(롬 10:1~3)

(롬 10:9~12)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누가복음 18장 18~23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18절)”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점에서 잘못된 질문입니까?
2.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명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20절). 로마서 3장 20절을 읽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3. 그 관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마태복음 5장 21~22절, 27~28절을 읽고 잘 생각해 본 후 답을 적어 봅시다.
4.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영생과 재물 중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마 19:22)?
5.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러나 버리기 아까운 나의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교만, 혹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마음의 차이



아! 이 돈으로 살 게 없네.

천 원! 쓰려고 하면 너무 적은 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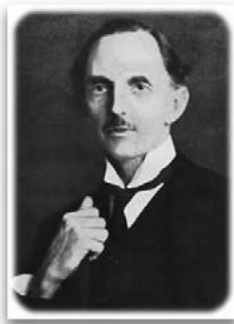


하지만 헌금하려면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건지...

똑같은 지폐 한 장이 시장과 교회당에서 각각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쓰여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은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행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금보다 수백 배의 이자를 영원히 주는 은행은 하나님의 은행뿐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딤후 6:17~18)

C.T. 스테드(Charles Thomas Studd)의 순종



C.T. 스테드는 영국의 선교사로서 일생을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에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본래 그는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사냥과 크리켓, 그리고 경마를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1875년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무디의 전도집회’에 참석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경마에서 최우수상을 탄 말을 팔고 경마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온 정열을 바쳐 친구들과 친척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찰스 스테드는 아버지의 간절한 전도를 피해 다녔고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1년 후 스테드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크리켓이라는 경기에 빠져 있었고 실제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4년 동안 대표선수로 활동하면서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라는 격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형이 심각한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그는 문안을 갔다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 그리고 부가 현재 병으로 죽어가는 나의 형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나 역시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형의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그는 무디의 전도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구원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때, 크리켓에 쏟은 의지와 정열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데 바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의 친구들인 크리켓 선수들이 차례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완전한 자기 부인과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결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외 선교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엄청난 재산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부자청년이 실패했던 바로 그 일을 자신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영국 선교 및 해외 선교를 위해 수많은 돈을 드렸으며 그의 약혼녀를 위해서도 9,600불이라는 당시로서는 많은 돈을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있어서 장래의 남편 될 사람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찰스, 주님께서 젊은 부자청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지 아세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빈손으로 출발해야 되겠군요.” 그리하여 그 돈도 역시 선교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